



'아스쿠니의 미망'

# '5월아픔' 넘어 세계평화를 담다

트럭 위 총을 든 시민군은 하늘을 향해 환호의 아우성을 치고, 길가 시민들은 서로 어깨를 감싸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상인들은 광주리에 담긴 주먹밥을 나눠주고 있고, 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는 시민군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한국 민중미술을 이끌었던 홍성담씨가 조각칼로 새긴 1980년 5월 광주의 풍경이다.

## 30년만에 광주서 개인전 갖는 민중미술 1세대 작가 홍성담씨

광주의 아픔을 '5월 관화'에 새겨 세상에 알렸던 홍씨가 광주에서 30년 만에 개인전을 연다. 5월6일~6월6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그는 광주민중항쟁 당시에는 시민군의 일원으로 활동했고 이후에는 광주·전남에서 지역문화운동을 이끌었던 민중미술의 1세대 작가다. 전통 명화, 민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적 미학을 민중 미술로 승화시켰다.



### 5·18 30주년 기념 특별전

5월 6일~6월 6일 상록전시관

### '흰 빛 검은 물' 주제 70여점 선보여

### '아스쿠니의 미망' 연작 전시도

이번 전시에서 그는 '흰 빛 검은 물'을 주제로 2000년대 이후 성찰과 담금질을 통해 창작된 작품 70여 점을 선보인다. 아스쿠니 신사를 소재로 한 '아스쿠니의 미망(迷妄)' 연작 등 평화에 대한 갈망이 담긴 작품들이다.

동아시아에 도사리고 있는 군국주의의 망령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아스쿠니신사를 배경으로, 히로히토 천황을 꼭두각시로 묘사했다.

또 국가를 위해 희생되어야 했던 일본인과 강제동원된 조선인 병사들의 삶은 흔들리는 연분홍과 보라색 빛깔로 그려졌다. 아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조선인 병사, 종군위안부 문제 등도 함께 다뤘다.

한국의 군부독재자와 정치인들도 풍자했다. 총 위에 서 있는 한 정치인은 자신이 마치 부처인양 허세를 부리고 있고, 미소를 지으며 삼을 밟고 서 있는 또 다른 정치인의 모습은 위태롭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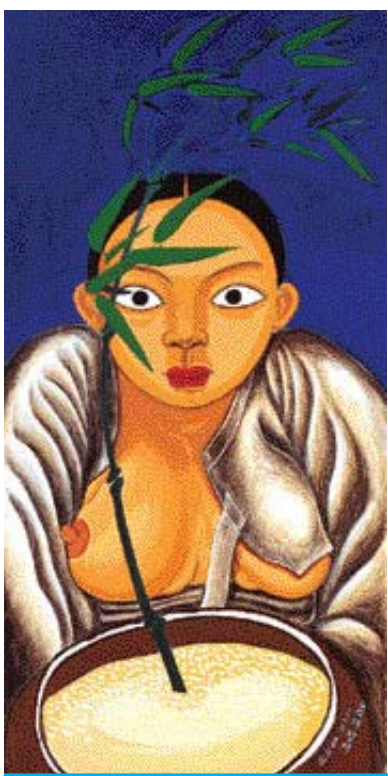
정치인과 군인들의 밝은 미소와는 달리, 죽을

을 상징하는 해골의 형상은 을씨년스럽고, 흰웃을 입은 백성들의 모습은 고통 그 자체이다.

전시 개막에 앞서 오는 5월 1일 '일본 평화학회'와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소속 지식인 200여명이 홍씨의 전시회를 찾아 홍씨의 작품을 감상하는 행사도 결렬된다.

신안 출신인 홍씨는 조선대 회화과를 졸업한 뒤 지난 80년대 50점으로 구성된 연작 '5월관화'를 포함해 300여점의 관화작품을 선보였다. 또 지난 1989년 7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보낸 걸개그림 '민족해방사'의 슬라이드 필름을 제작·배포한 주동자로 지목, 감춰져가 적용돼 3년간 복역했다.

수감 기간 동안 국제앰네스티본부에 그를 '올해의 양심수 3인'(1990년)으로 뽑았고 '양심수를 위한 독일 함부르크재단'은 그의 관화전을 개최했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군국주의를 극복하고, 광주의 아픔과 저항을 넘어 새로운 평화의 의미를 찾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13-539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손대잡이'

# 수묵에 번지는 '웃음의 미학'

## 주대희展 갤러리 D... 아이들의 다양한 표정 담아

동심은 무채색이다. 화려한 빛깔로 본모습을 감추고 있는 거짓, 욕망, 속임수 등 못된 단어들에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이다.

수묵의 단아함으로 동심의 세계를 화폭에 담고 있는 한국화가 주대희씨가 오는 5월5일까지 광주시 동구 대의동 갤러리D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묵(墨)의 진동'을 타고 번지는 '웃음'을 주제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다양한 표정을 담은 '웃음의 미학'을 선보인다.

묵을 재료로 하는 작가들이 산수화 등 특정 소재와 형식에 사로 잡혀 있는 데 반해, 그의 작품은 자유롭다.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가져왔다.

화폭을 가득 채운 아이스크림을 들고 행복에 겨워하는 아이, 강아지와 뛰노는 아이, 울음을 터뜨린 아이의 모습에서는 순수함이 묻어난다.

또 먹만을 가지고 짙은 검정, 옅은 검정 등 검은색이 낼 수 있는 다양한 색의 변화를 통해 사물을 표현하는 기법도 감상 포인트다.

조선대 미술대학 김종경 교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이라는 코드를 통해 꾸미지 않은 순수함과 더불어 관람객들로 하여금 잊혀져가던 자신의 유년시절 기억을 회상하게 해준다"고 평했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광주시립미술대전 최우수상, 무등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일본,



'올보야 똑 해'

서울, 광주 등지에서 열린 단체전과 한국국제아트페어, 화랑미술제 등 국내외 아트페어 참여했다. 문의 062-222-801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대표거리 충장로 극악 갈라 뮤지컬로

## 나빌레라 예술단 내일 문예회관

광주의 대표 거리 충장로를 소재로 한 극악 갈라 뮤지컬이 선보인다.

지역 젊은 층을 겨냥한 나빌레라 예술단(단장 한명선)이 '충장로 아리랑'을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사진>

충장로는 광주 시민들의 추억과 삶이 녹아 있는 곳이다. 즐거운 청춘의 기억들이 가득하고,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다. 나빌레라 예술단은 충장로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흥겨운 우리 가락과 춤사위에 실어 극악 갈라 뮤지컬로 만들었다.

'충장로 아리랑'은 오성만 푸른연극마을을 대표가 극본과 연출을, 전복대 한국음악과 겸임교수인 강종화씨가 음악을 맡았다. 뮤지컬 넘버는 충장로의 추억과 학창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충장로 아리랑'과 오월 영령들을 위한 진혼곡 '영경귀' 등 5~6곡이다.

이번 무대는 나빌레라 단원 외에도 시립극단과 관현악단, 일수, 푸른연극마을, 경기국악컴퍼니오케스트라



단원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한편 이번 공연의 1부에서는 나빌레라예술단의 첫 번째 정기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대금산조 이수자인 강종화씨의 '이생강류 대금산조'와 장호준씨의 '소고춤', 풍물놀이예술단 '광대'의 신명나는 무대 등이 결렬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62-510-9254.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 나주 예비 사회적 기업 GOART 해외공연

## 우크라이나 필하모니와 협연무대

나주시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GOART 문화사업단(대표 김진호) 소속 GOART뮤지션스가 우크라이나의 프로코피예프 필하모니와 협연하기 위해 지난 25일 출국했다.

프로코피예프 필하모니와 협연하는

GOART뮤지션스는 팀장이자 클라리넷 연주자인 이종수씨를 포함, 모두 8명의 연주자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소속 음악인들이 해외공연에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33년 창단, 77년의 역사를 자랑하

는 프로코피예프필하모니는 300여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GOART뮤지션스 28일부터 5월 초까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오케스트라홀에서 공연을 갖을 예정이다. 연주레퍼토리는 생상의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아프리카'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서곡' 등이며 한국 가곡인 하대응곡 '못잊어', 김동진곡 '나를 깨는 처녀', '아리랑 환상곡'도 들려준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